

## 韓醫學 五色의 色彩論的 연구

김경신<sup>1</sup> · 김병수<sup>1\*</sup>

### Study on Chromatology of the Five Cardinal Colors in Oriental Medicine

Kim Kyoung-Shin<sup>1</sup> · Kim Byoung-Soo<sup>1\*</sup>

<sup>1</sup>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It fuses into culture of the East and the West in use of color ; colors of five direction, which had been from the Five Phase Theory in East Asia. Formative ability of color fields in a formative early Oriental Medicine history as well.

Color is a very important factor and a necessary step of visible diagnosis. As a human's body is maintained and alive under the control of spirit and spirit is stored by five viscera, so spirit expresses the change of five viscera and is reflected by color. Visible diagnosis consists of spirit, appearance, Qi and color and movement. The purpose of each visible diagnosis is that we would know states of essence, Qi and spirit in patient's body.

To ancient Asia people 'to see' was a kind of insight to the object as a whole. Similarly the activity of seeing the human body was the integral part of making diagnosis of a patient. This was the cause that there was suggested the discussion of the Five color theory in Oriental Medicine as a counterpart to that of the 'Goethe for Zur Farbenlehrer'. The inspection of Oriental Medicine was not a simple gazing of the eye as a sense organ, but the total insight to the internal state of the patient. For that reason, the eye-perception in early Chinese medicine was the reading the signs of the internal body which had have not the visual form but the flux of the internal life.

**Key words** : chromatology, the five cardinal colors (blue, yellow, red, white, black), oriental medicine.

### I. 序 論

色の 정의는 한자어의 빛 색(色)으로, 순우리 말로는 '빛깔'로 표기한다. 이처럼 동양권에서는 빛과 색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빛이 있음으로 해서 존재하고 인식 되는 실체적인 것이다. 사전적 정의로 보면 색과 색채는 빛 스펙트럼의 組成差에 의해서 성질의

차가 인정되는 視感覺의 특성으로 두 단어는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색채는 物에 한정된 용어이다. 이에 반하여 색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빛을 의미한다. 또한, 색이라는 단어는 불교의 五蘊인 色, 受, 想, 行, 識 중의 하나로 인간의 육체를 포함하여 모든 물리적인 것을 나타내는 말로써 顯色과 形色이 있으며, 빛을 발하는 자체를 말하기도 한다. 현색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색의 의미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의미하고 형색이란 주로 형태에 관계된 의미이다<sup>2)</sup>.

\* 교신저자: 김병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E-mail: kbsoo25@dju.kr  
투고일 : 2011년 7월12일 확정일 : 2011년7월28일

빛은 자연만물에 닿으면 각각 다르게 반사되어 신비롭고 다채로운 색으로 표현된다. 색은 빛의 파장에 의해서 결정되며 인간은 자연환경과 접하면서 다양한 색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 순간 뿐 아니라 눈을 감고 있는 순간에도 색을 느끼고 보며 그 속에서 살아간다. 색은 독특한 형태와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의식의 경험으로 전달되고 인간의 생리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다<sup>3)</sup>.

韓醫學에 있어서도 색의 중요성은 五色을 통해 표현되는데, 生理 病理에서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론으로서 진단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五色 즉 靑·赤·黃·白·黑色 들은 五行學說에 바탕을 두며 五行의 담겨진 의미와 상징을 통해 인체에 적용하여 진단과 생리, 병리에 이용되었다. 특히 望診에서 五色을 기준으로 진단을 해왔다. 또한 『靈樞·五色』에서 五色이 주관하는 證候를 “靑黑爲痛, 黃赤爲熱, 白爲寒”<sup>4)</sup>이라고 언급하였는데 臟腑 配屬 뿐만 아니라 五色에 따라 증상도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韓醫學의 五色이 갖는 의미와 함께 각 색이 갖는 의미를 臟腑 뿐만 아니라 望診에서 氣色의 의미와 그 근원적 차이 근거를 찾고자 한다. 또한, 괴테의 색채론으로 재해석함으로써 韓醫學 五色이 갖는 의미를 심리적으로 이해하려 한다.

## II. 本 論

### 1. 東洋文化에서의 五色 象徴

陰陽五行 사상은 동양철학의 根幹을 이루는 사상체계로 오랜 세월 중국을 비롯한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五行의 각 요소

들은 색, 계절, 방위, 맛, 인체의 장부 등에 배속되어 자연과 인체를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靑, 赤, 黃, 白, 黑의 五色은 五行에 따르는 각 正色이 되었으며 사이에 각각의 間色이 있다. 靑과 黃의 間色에는 綠(녹색), 靑과 白의 間色에는 碧(벽색), 赤과 白의 間色에는 紅(홍색), 黑과 赤의 間色에는 紫(자색), 黑과 黃의 間色에는 硫黃(유황)색이 있어 이들을 五間色 또는 五方雜色, 五方間色이라 칭하며 이들 五方間色은 다시 70色の 雜色을 이루게 된다<sup>5)</sup>.

五色 중 靑色은 木을 상징하여 동쪽(東)에 위치하며 해돋이의 밝음, 풍성함, 성장을 의미하며 창조와 생식을 상징한다. 성장과 충성함을 의미하며 식물 등을 생명, 발생을 상징하는 색이다. 계절은 봄이며, 五臟 중 肝臟을 의미한다. 赤色은 火를 상징하여 남쪽(南)에 위치하며 따뜻함, 만물의 무성한 부를 의미하며 액막이를 하는 주술적 의미로도 쓰이는 색이다. 부정을 막으며 양기가 왕성하고 만물이 무성하여 생명탄생의 힘, 전통적으로 국왕이 입었던 홍포의 색으로 절대 권력을 상징한다. 계절로는 여름이며, 五臟 중 心臟을 의미한다. 黃色은 土를 상징하여 중앙에 위치하며 모든 색의 근원으로 숭상되었으며, 우주의 중심을 의미한다. 계절은 늦가을 또는 환절기이며 五臟 중 脾臟을 의미한다. 白色은 金을 상징하여 서쪽(西)에 위치하며 淸淨, 순수, 광명, 도의를 의미하며 태양의 색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계절로는 가을이며, 五臟 중 肺臟을 의미한다. 黑色은 水를 상징하여 북쪽(北)에 위치하며 백색과 함께 陰의 색으로 만물의 생사를 관장하는 암울한 세계를 의미한다. 계절로는 겨울이며 五臟 중 腎臟을 의미한다<sup>6)</sup>(Table 1).

2) 배하나. 선호색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색채감성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2004.  
3) 류수정. 오방색의 색면 구성을 통해 전체론적 기능을 시도한 다과기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2007.  
4) 洪元植 校注.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p227, 1985.

5) 배하나. 선호색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색채감성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6, 2004.  
6) 류수정. 오방색의 색면 구성을 통해 전체론적 기능을 시도한 다과기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0-12, 2007.

Table 1. 五色 配屬表

五色	方位	五行	季節	五倫	五臟	五官	味
青	東	木	春	仁	肝	目	酸
赤	南	火	夏	禮	心	舌	苦
黃	中央	土	四季節末	信	脾	口脣	甘
白	西	金	秋	義	肺	鼻	辛
黑	北	水	冬	知	腎	耳	鹹

2. 韓醫學에서의 五色

『說文解字』에 보면 “色”은 “人”과 “巴”의 합성자로서 “巴”는 “節”의 본자인 “卩”이므로 “色”은 곧 사람의 마음이 顏色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일컫으며<sup>7)</sup>, 여기에서 유래하여 넓게는 색깔을 뜻하게 되었다. 결국 양미간 사이를 顏이라 하고 精神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氣라고 하므로 顏氣, 氣色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色은 精神과 身體를 연결시키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의 精神은 七情(喜怒哀樂愛惡欲)이 心으로부터 발하여 육체를 거쳐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므로, 色은 감정 상태를 몸 밖으로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藏象이 된다고 할 수 있다<sup>8)</sup>. 이러한 色은 五行學說과 결합하여 五色으로 구분되어져 인체에 적용되어 진단과 생리, 병리 상에서 유용하게 이용되어졌다.

韓醫學에서는 五色(青·赤·黃·白·黑)은 기본적인면서도 매우 중요한 이론으로서 진단에 있어서도 많이 적용된다. 『素問·金匱眞言論』 “東方青色……入通於腎”, 『五臟生成論』 “色味當五臟 白當……黑當腎臟”, “凡相五色之奇脈 面黃目青……面赤目青 皆死也” 등에서 오색이론이 생리, 병리, 진단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임을 알 수 있다<sup>9)</sup>. 따라서 한의학에서 색은 동

양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五行學說에 따라 오색을 이루어 五行에 배속하여 이해되고, 이를 다시 인체에 대입하여 진단과 병리, 생리적인 면으로 적용되었으며, 근래에는 대체의학의 하나인 色彩療法 등에서 색을 이용한 질병 치료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sup>10)</sup>.

五行에 따른 五色의 배속을 『內經』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陰陽應象大論」과 「五運行大論」은 五行에 따라 方位, 氣, 味, 臟, 體, 五官 등과 함께 五色을 배속하였으며, 「金匱眞言論」은 五色과 方位, 藏府, 五官을 배속하였고, 「六節臟象論」은 五色을 五行에 따라 臟, 華, 充, 味와 함께 배속하였으며, 『靈樞·五味』에서는 色과 味の 관계를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에서는 臟, 時, 音, 味, 天干과 함께 色을 배속하는 五變의 의의와 五變主病과 상응관계의 五俞穴을 자극하여 치료함을<sup>11)</sup>, 『靈樞·五音五味篇』에서는 色과 臟, 時, 味, 穀食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와같이 『內經』에는 오행을 인체의 생리·병리에서 臟腑와 經絡과 病因과 病機, 疾病의 진단, 예후 등에도 응용되어 왔다<sup>12)</sup>.

『內經·五色』篇은 五色에 관한 질병과 진단 방법 등이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五色도 하나의 色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生氣의 有無에 따라 人體生理의 情況이 좋고 나쁨이 있으니 『素問·脈要精微論』에서는 “夫精明五色者, 氣之華也. 赤欲如帛裹朱, 不欲如赭 白欲如鶩羽, 不欲如鹽 青欲如蒼璧之澤, 不欲如藍 黃欲如羅裹雄黃, 不欲如黃土 黑欲如重漆色, 不欲如地蒼.”이라 하여 예를 들어 붉은 빛이 주사를 비단으로 쌓은 듯한 潤澤한 色이 나오면 火의 상태가 온전한 것이며, 붉은 흙과 같이 윤기가 없으면 火의 상태, 또는 心臟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음을 나타낸다<sup>13)</sup>.

7) 許慎.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pp431-432, 1990. “色, 顏氣也. 從人卩, 凡色之屬皆從色.”  
 8) 공희일. 색채의 한의학 적용 방법론 연구. 제6회 현국상 응모 논문집, p5, 1996.

9) 신승우 외. 색채요법에 관한 고찰.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10(2):139-156, 2000.  
 10) 片秀範, 尹暢烈. 『內經』中 五色에 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2(2):105-119. 2004.  
 11)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5, 1982.  
 12) 片秀範, 尹暢烈. 『內經』中 五色에 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2(2):105-119. 2004.

臟腑와 色을 직접적으로 배속함에 있어서도 本藏의 色은 肝靑心赤脾黃肺白腎黑으로 本藏이 주관하는 부위에 本藏色이 나타나는 경우와 특정 부위에 나타나는 本藏色으로 구분할 수 있다. 本藏이 주관하는 부위에 本藏色이 나타나는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靈樞·五閱五使』에서 五藏에 病이 있는 경우 五官부위에 本藏色이 나타나는 경우이다<sup>14)</sup>. 이런 경우에는 특정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그 근원이 되는 臟腑를 반영하는 예가 많다. 예를 들어 臟腑에 특수한 상황에 따라 熱이 발생하여 瘰癧가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이 되는 臟腑의 色과 主하는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고<sup>15)</sup>, 五藏風이 발생하였을 때 각 藏을 반영하는 특정부위에 그 本藏色이 나타난다<sup>16)</sup>. 특정부위에 나타나는 本藏色의 경우는 어떤 특정부위에 어떤 色이 나타났을 때 이는 그 色이 속하는 本藏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때의 특정부위는 五藏의 精이 모이는 부위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目의 色이 赤色이면 病은 心에 있고, 白하면 肺에 있으며, 靑하면 肝에 있고, 黃하면 脾에 있으며, 黑하면 腎에 있다<sup>17)</sup>. 皮膚의 경우 靑色으로 小理하면 肝小하고 粗理하면 肝大하고, 赤色으로 小理하면 心小하고 粗理하면 心大하며, 黃色으로

小理하면 脾小하고 粗理하면 脾大하고, 白色으로 小理하면 肺小하고 粗理하면 肺大하며, 黑色으로 小理하면 腎小하고 粗理하면 腎大한 것으로 色과 腠理의 小粗가 本藏의 大小를 반영한다<sup>18)</sup>. 이와 같이 피부 및 기관의 색을 통해 내부 장부 및 건강의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색을 통한 한의학적 진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 3. 望診의 五色

한의학의 진단은 “有諸內者,必形于外”라는 원리에 따라 인체의 외부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四診(望聞問切)을 통하여 체내의 생리 및 병리적 상태를 알아내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四診 중에서도 望診을 가장 중시하여 『難經』에서는 “望而知之者 謂之神, 聞而知之 謂之聖, 問而知之 謂之工, 切脈而知之 謂之巧”라고 해서 望聞問切 중에 望診을 진단의 최고경지로 인식하였으며 『靈樞·本藏篇』에서도 “視其外應, 以知其內藏, 則知所病矣”<sup>19)</sup> 이라 하고, 朱丹溪는 “欲知其內者, 當以觀乎外”라고 하여 望診이 진단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설명하였다<sup>20)</sup>.

『內經』에 망진에 대해 面部와 眼睛의 오색의 변화와 沈浮, 聚散, 澤沃, 明暗 등 그리고 면부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어느 부위는 어느 臟腑의 병변이 나타난다고 정해 놓았으며, 色調의 沃澤으로 疾病의 예후를 판단한다. 이와 같은 面部의 色診은 “曰治未病.”<sup>21)</sup>이라 하여 赤色이 안면의 어느 부위에 나타나는가에 따라 그 부위에 해당되는 臟腑의 熱을 살폈다.

『靈樞·五色篇』에서는 “靑爲肝, 赤爲心, 白爲肺, 黃爲脾, 黑爲腎” 등 오색으로 오장의 병변을 반영하거나 “黃赤爲風, 靑黑爲痛, 白爲寒, 黃而膏潤爲膿, 赤甚者爲血” 등 오색으로 병변의 성질을 확정하는 것이다. 특히, 經絡에 있어서 經脈은

13) 김광호, 時·空 合一의 觀點으로 살펴본 顔面望診에 대한 研究,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5, 1999.

14) 洪元植 校注.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186, 1985. “願聞五官. … 鼻者, 肺之官也, 目者, 肝之官也, 口脣者, 脾之官也, 舌者, 心之官也, 耳者, 腎之官也. … 以官何候 … 以候五臟. 故肺病者, 喘息鼻張, 肝病者, 眇靑, 脾病者, 脣黃, 心病者, 舌卷短, 靨赤, 腎病者, 靨與顏黑”

15) 洪元植 校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166, 1985. 『素問·痿論』 “肺熱者, 色白而毛敗. 心熱者, 色赤而絡脈溢. 肝熱者, 色蒼而爪枯. 脾熱者, 色黃而肉蠕動. 腎熱者色黑而齒槁”

16) 洪元植 校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p157-158, 1985. 『素問·風論』 “肺風之狀 多汗惡風 色皛然白 時咳短氣 … 診在眉上 其色白. 心風之狀 多汗惡風 焦絕善怒噉 赤色 … 診在口 其色赤. 肝風之狀 多汗惡風 善悲 色微蒼 噉乾善怒 … 診在目下 其色靑. 脾風之狀 多汗惡風 … 色薄微黃 … 診在鼻上 其色黃. 腎風之狀 多汗惡風 面處然浮腫 … 其色皛 … 診在肌上 其色黑”

17) 洪元植 校注.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309, 1985.

18) 洪元植 校注.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214, 1985.

19)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一中社, p358, 1991.

20) 신승우 외. 색채요법에 관한 고찰. 한방제활의학회학회지 10(2):139-156, 2000.

21)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一中社, p259, 1991.

항상 보이지 않은 것으로 그 虛實은 氣口로 알고, 脈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絡脈이다. 해당하는 脈色이 靑하면 痛이고, 赤하면 熱이며, 胃中이 寒하면 手魚의 絡이 多靑하고, 胃中이 熱하면 魚際의 絡이 赤하며, 갑자기 黑해지는 것은 오래된 痺이고, 赤이 있고 黑이 있고 靑이 있는 것은 寒熱氣이다<sup>22)</sup>.

皮膚를 살펴서 三陰三陽의 해당하는 부위에 浮絡이 있으면 이는 해당 三陰三陽의 浮絡으로 多靑하면 痛이고, 多黑하면 痺이며, 黃赤은 熱이고, 多白하면 寒이며, 五色이 모두 보이면 寒熱이다<sup>23)</sup>. 이는 尺部의 血脈의 상황을 살펴는 것과도 비슷하니 尺部의 血脈이 多赤하면 多熱하고, 多靑하면 多熱하며, 多黑하면 久痺이고, 多赤多黑多靑이 모두 보이면 寒熱身痛한다<sup>24)</sup>.

『素問·風論』篇에는 각 臟風症에 따른 안면의 색과 나타나는 부위와 증상을 열거하면서 각 장이 응하는 부위를 말하였고<sup>25)</sup>, 『靈樞·五閱五使』篇에서 “黃帝曰 願聞五官 岐伯曰 鼻者 肺之官也 目者 肝之官也 口脣者 脾之官也 舌者 心之官也 耳者 腎之官也.”라 하여 오관을 오장에 배속하였으며 “肺病者 喘息鼻脹 肝病者 皆靑 脾病者 脣黃 心病者 舌卷短 顓赤 腎病者 顓與顏黑”<sup>26)</sup> 각 장의 병증에 따른 색과 나타나는 부위와 그 증상을 열거하고 있다.

인체 배속은 藏象에서 臟腑가 주관하는 부위와 『靈樞·五色』에서의 人身의 안면배속 등을 모

두 유념해야 한다. 어떤 질병이 발생한 경우 색이 나타난 부위는 이상이 나타난 곳을 반영하고 색은 그 病邪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五官을 포함한 臟腑가 주관하는 부위에 색이 나타난 경우, 색이 나타난 부위는 그 부위를 주관하는 臟腑의 이상을 나타내고 색은 그 臟腑病邪의 성질을 나타내니 黃赤은 熱이고, 白은 寒이며 靑黑은 痛 등이다. 특히 人身의 안면배속의 경우에는 색이 나타난 부위는 發病한 인체부위를 반영하고 색은 病邪의 성질을 나타내니 黃赤은 風이고, 靑黑은 痛이며, 白은 寒이고, 黃하고 膏潤한 것은 膿이며, 赤이 심한 것은 血이다<sup>27)</sup>.

韓醫學에서 망진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색채의 종류에 따른 분류로는 正色, 間色, 雜色이 있는데, 특히 正色은 韓醫學의 五色(靑·赤·黃·白·黑)과 같으므로 망진할 때의 기준이 된다.<sup>28)</sup> 『五行大義』에 따르면, 오색이 상생으로 작용될 때를 正色이라고 하며, 順이므로 陽으로 여겼고, 五色이 상극으로 작용되어 색이 과생되면 이를 間色이라고 하는데 逆이므로 陰으로 여겼다는 것이다<sup>29)</sup>. 「五臟生成論」에서는 안색이 潤하고 神이 있는 生하는 색과 枯하며 無神하여 死하는 색, 은은하게 나타는 生氣의 外榮의 색이라 하여 외부로 나타나는 오장의 生氣 표현의 五色으로 나타내었다<sup>30)</sup>. 「脈要精微論」은 精明五色과 五色精微象과 병증과 臟과의 관계와 색으로 新舊病의 구분, 脈과 색의 관계에 대하여 나오며 「經絡論」에서는 臟과 經絡의 색과 四時에 따른 絡脈의 변화와 상색에 관한 것을 설명하였다. 이외에 血脈의 색을 진단하여 병변의 성질을 정하는 방법으로 『靈樞·論疾診尺』篇에 “診血脈者 多赤多熱 多靑多痛, 多黑爲久痺, 多赤多黑多靑皆見者 寒熱身痛”<sup>31)</sup>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망진에

22) 洪元植 校注.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84, 1985.  
 23) 洪元植 校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198, 1985.  
 24) 洪元植 校注.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309, 1985.  
 25) 『素問·風論』帝曰. 五臟風之形狀不同者何. 願聞其診及其病能. 岐伯曰. 肺風之狀, 多汗惡風, 色皤然白. 時欬短氣, 晝日則差, 暮則甚, 診在眉上, 其色白. 心風之狀, 多汗惡風, 焦絕善怒嘯, 赤色, 病甚則言不可快, 診在口, 其色赤. 肝風之狀, 多汗惡風, 善悲, 色微蒼, 噓乾善怒, 時憎女子, 診在目下, 其色靑. 脾風之狀, 多汗惡風, 身體怠墮, 四支不欲動, 色薄微黃, 不嗜食, 診在鼻上, 其色黃. 腎風之狀, 多汗惡風, 面癢然浮腫, 脊痛不能正立, 其色皛, 隱曲不利, 診在肌上, 其色黑.  
 26) 洪元植 校注.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186, 1985.

27) 洪元植 校注.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227, 1985.  
 28) 공희일. 색채의 한의학 적용 방법론 연구, 제6회 현곡상 응모 논문집, p20, 1996.  
 29) 공희일. 색채의 한의학 적용 방법론 연구, 제6회 현곡상 응모 논문집, p18, 1996.  
 30) 洪元植 校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39, 1985.  
 31) 洪元植 校注.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186, 1985.

있어서 안면 오색의 정색과 간색 의미를 강조하였으며 병증과 장부와의 관계를 통해 병의 진단과 치료의 근거로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 4. 望診의 察色

望診 察色에 있어서 五色 뿐만 아니라 색택을 중요하게 여겼다. 澤이란 신선, 광, 선명, 暗등의 光彩를 말하는데 진단에 있어서 사람의 顏色이나 皮膚, 舌의 色澤 등을 보고 病을 診斷하였으며, 『脈要精微論』과 같이 色에 있어서 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간파하였고<sup>32)</sup>, 이 色澤에 따라 病의 情況이 달라짐을 설명하였다<sup>33)</sup>.

五色을 통한 望診에 관하여 『靈樞·五色』篇은 장부의 색 배속과 함께 색의 上下 左右 内外에 따른 顔面 望診과 병의 進行을 살피는 진단방법이 나오며, 이외에도 五色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서술되어 있고, 『靈樞·五閱五使』篇은 明堂의 察色에 부분이 나오며 五官과 五色을 관찰하여 五臟의 常과 變을 살피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sup>34)</sup>. 脈診과 察色에 대하여 『奇病論』에서는 脈診과 함께 察色 부분이 나오며, 『玉機眞臟論』에서는 眞臟脈과 色의 관계 등을 色과 脈의 相關關係로 보여주고 있고, 『邪氣臟腑病形』篇에서는 望診과 尺膚色과 脈의 診斷의 중요성을 說明하였다<sup>35)</sup>. 『風論』은 臟의 風症과 안면망색과 망진 부위에 관하여 나오며, 『素問·刺熱論』에서는 五臟의 熱에 따라 색이 나타나는 部位를, 『靈樞·小針解』는 눈과 察色에, 『玉板論要』는 色의 淺深과 左右에 따른 從逆과, 『靈樞·經脈』篇은 魚際部位 色으로 胃의 寒熱을 진단하고, 『痿論』은 五臟의 熱을 色으로 진단하는 것을 설명하였다<sup>36)</sup>.

이와 같이 望診에 있어서 色은 그 자체 뿐 만 아니라 察色이라는 부분을 포함하여 단지 色의 구별이 아닌 위치와 그 氣色을 강조함으로써 望診의 활용과 望診하는 자의 판단적 근거를 제공한다. 즉 望診時 察色은 五色을 기준으로 하지만 五色으로 정의된 기준에다 색택에 의한 추가적인 부분을 참조해야 하며 더 나아가 氣色으로 인한 전체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객관적으로 발견된 부분과 의사가 인지할 수 있는 주관적인 부분이 혼합되어서 진단에 작용됨을 알 수 있다.

#### 5. 本草에서의 五色

本草의 形色氣味로 그 성질과 쓰임을 판별하는데, 그 중에서 『五色之義』를 살펴보면 “靑屬木入肝, 赤屬火入心, 黃屬土入脾, 白屬金入肺, 黑屬水入腎”<sup>37)</sup>라고 하여 藥物의 色에 따라 관련된 臟腑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黃帝內經』에서의 五臟과 五味에 관련된 내용들을 발전시켜 色을 本草와 연관시켜 관찰하였고, 『本草綱目·十劑』에서는 “空靑法木 色靑而主肝 丹砂法火 色赤而主心 雲母法金 色白而主肺 磁石法水 色黑而主腎 黃石脂法土 色黃而主脾 故觸類而長之 莫不有自然之理”<sup>38)</sup>라고 하였다. 이는 藥物歸經學說의 내용의 하나로 五行配屬을 통해 五色 五味와 臟腑經脈과 서로 결합시켜 생긴 이론이다. 『血證論』에서도 “赤豆性能利濕 發芽赤色 則入血分”<sup>39)</sup>이라고 하여 本草와 色의 관계에 대해 적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本草問答』에서는 瀉火 작용을 가진 苦味の 약물에 黃色이 많은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sup>40)</sup>. 즉, 火는 본래 붉은 색이지만 土의 黃色을 낳는

院出版部, p309, 1985.

32) 신승우 외. 색채요법에 관한 고찰.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10(2):139-156, 2000.

33) 片秀範, 尹暢烈. 『內經』中 五色에 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2(2):105-119, 2004.

34)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537, 1982.

35)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79, 1982.

36) 片秀範, 尹暢烈. 『內經』中 五色에 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2(2):105-119, 2004.

37) 汪認庵 著, 汪昂 編著. 本草備要. 中國,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38) 李時珍.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pp34-36, 1993.

39) 唐宗海. 血證論. 대만, 力行書局有限公司, 1984.

40) 唐宗海, 金俊錡 國譯. 本草問答, 서울, 대성문화사, pp. 48-50, 1996.

“瀉火之苦藥 其色多黃 又何故也. 黃者土之色 五行之理 成功者退 火之色紅 而生土之黃色 是黃者火之退氣所生也 故黃苦之藥 皆主退火 若味苦而色不黃 則又有兼性矣 故花粉色白 味苦而有液 則瀉火之功輕 而入胃生津之力重 元參色黑 味苦而有液 則瀉火之功少 而滋腎之功多 丹皮色紅味苦 則清心火而行血 靑黛色靑味苦 則清肝火而熄風”

데 黃色은 火氣가 물러가면서 만든 색이므로, 색이 누르고 맛이 쓴 약물은 모두 退火 작용을 가진다고 하였다. 만약 맛은 쓰나 黃色이 아니라면 이는 兼性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天花粉은 색은 희고 맛은 쓰며 液汁이 있다. 따라서 瀉火작용은 약하나 胃에 들어가 生津하는 작용은 강하다. 元蓼의 색은 검고 맛은 쓰며 액즙이 있다. 따라서 瀉火 작용은 약하고 滋腎 작용이 강하다. 牡丹皮의 색은 붉고 맛은 쓰다. 그러므로 心火를 淸하게 하며 行血한다. 靑黛의 색은 푸르고 맛은 쓰다. 따라서 肝火를 淸하게 하며 熄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本草의 색도 그 약물의 성질을 발현하고 있는 현상이므로, 그 쓰임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sup>41)</sup>. 즉 五行의 분류에 의한 五色 분류를 통해서 본초의 생리적 분석이 가능한 면을 볼 수 있으며 이런 관점은 형색기미의 五色, 五氣, 五味 등의 각각 오행 적용에 대한 본초 생리 해석을 보다 섬세하게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해당 부분을 정리할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6. 東洋思想에서 目的의 의미

한자 표현인 ‘見聞’은 단순히 보고 듣는 행위를 가리키는 ‘視聽’이란 말과 달리 사물을 이해하여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코와 입으로 냄새 맡고(숨쉬고) 맛보는(먹는) 것이 생명의 기본적인 본능적 감각이라면, 보고 듣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높이려는 이성적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냄새 맡고 맛보는 감각도 사물을 분별하지만 특히 보고 듣는 것은 사물에 대한 인식에서 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sup>42)</sup>. 荀子『君道』편에서 “보지 않고도 안다(不視而見)<sup>43)</sup>”고 하거나 老子『道德經』에서 “보고도 알지 못한

다”(視之不見)<sup>44)</sup>고 한 표현은 ‘視’와 ‘見’이 단순한 의미의 보는 행위와 엄밀한 인식으로서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sup>45)</sup>.

『黃帝內經』은 눈을 命門이라 부르기도<sup>46)</sup> 하는데 여기서 명문은 말 그대로 생명의 문, 생명의 기운이 드러나는 문이라는 뜻이다. 눈을 생명의 문이라고 한 까닭은 『靈樞 大惑論』에는 “오장육부의 정기는 모두 위로 눈[目]으로 흘러들어가는[睛]이 되니 정기의 집이 눈[眼]이다. 뼈의 精은 눈동자가 되고 근[筋]의 정은 검은자위가 되고 피의 정은 혈관[絡]이 되고 기의 정은 흰자위가 되며 살의 정은 눈이 빠지지 않게 구속한다[눈꺼풀]. 힘줄, 뼈, 혈, 氣의 精 전체는 맥과 더불어 목계[目系]가 되며 목계는 위로는 뇌에 연결되고 뒤로는 뒷목 가운데로 나온다”<sup>47)</sup>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明代『醫學入門』<sup>48)</sup> 또는 朝鮮의 『東醫寶鑑』<sup>49)</sup>을 보면 眼部에 五輪八廓이라고 하여 눈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다. 五輪은 눈과 눈 주변 부위를 五行으로 분류한 것이고, 八廓은 눈과 눈 주변 부위를 八卦로 분류한 것이다. 즉 五臟六腑의 精氣가 모두 눈으로 올라오므로 눈을 분석해서 장부지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눈은 五臟과의 배속 관계에서 肝과 연결된다. 눈은 간, 혀는 심장, 입은 비장, 코는 폐, 귀는 신장에 속한다. 한의학에서 五官은 몸의 부분으로서 五臟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또한 각각 배속되는 五臟의 氣를 받아 기능한다. 그런데 유독 눈은 五臟六腑 전체와 관계를

41) 박승립. 色彩 心理.治療와 韓醫學에서의 色의 適用. 大田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pp63-64, 2004.

42) 광노규. 감각과 신체-고대 중국의학에서 신체 지각의 문제. 한국의철학회(3):77-95. 2007

43) 第二十四篇 君道 - 故天子不視而見, 不聽而聰, 不慮而知, 不動而功, 塊然獨坐而天下從之如一體, 如四肢之從心: 夫是之謂大形。

44) 『老子道德經』- 視之不見 名曰夷 聽之不聞 名曰希 博之不得 名曰微 此三者 不可致詰 故混而爲一 其上不其下不味 繩繩不可名 復歸於無物 是謂無狀之狀 無物之象 是謂恍惚 迎之不見其首 隨之不見其後 執古之道

45) 광노규. 감각과 신체-고대 중국의학에서 신체 지각의 문제. 한국의철학회(3):77-95. 2007

46) 『靈樞·根結』 "命門者 目也".

47) 『靈樞·大惑論』 "五臟六"之精氣 皆上注於目而爲之精 [睛] 精之爲眼. 骨之精爲瞳子 筋之精爲黑眼 血之精爲絡 其氣之精爲白眼 肌肉之精爲約束 筋骨血氣之精, 而與脈并爲系, 上屬於腦, 後出於項中".

48) 이천. 편주의학입문(영인본). 서울, 대성문화사, pp364-367, 1989.

49) 허준. 대역동의보감. 서울, 범인문화사, pp521-524, 1999.

가지며, 더욱 특이한 점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기능이 五臟六腑의 정미로운 氣 모두와 관련된다는 점이다<sup>50)</sup>(Table 2).

Table 2. 五臟과 目的 配屬

五臟	肝	心	脾	肺	腎
五體	筋	血	肉	氣	骨
目的 配屬	黑睛	大小眥	上下 臉	白睛	瞳人
五輪	風輪	血輪	肉輪	氣輪	水輪

또, 靈樞 「邪氣臟腑病形」에 따르면, “12 經脈과 365 絡脈의 혈기는 모두 얼굴로 올라가 얼굴의 감각기관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 정미로운 양기는 눈으로 들어가 밝게 보고 그 나누어진 기는 귀로 들어가 듣게 되며 종기는 코로 들어가 냄새를 맡고 탁기는 위장에서 나와 혀와 입으로 들어가 맛을 본다”<sup>51)</sup>고 하였다. 몸을 흐르는 혈기 중 가장 정미로운 精氣는 눈으로 들어가 정확하게 사물을 보게 하고 그 다음으로 精氣가 귀로 들어간다. 즉 눈은 오장육부의 精氣와 경락의 혈기 중 역시 精氣가 모이는 곳이다. 따라서 한 臟腑의 기만 모이거나 혹은 보다 덜 精氣가 모이는 다른 감각기관인 귀나 코, 입과는 구별된다. 눈의 질환 또한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눈의 피로” 하면 바로 간을 떠올리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나머지 네 臟腑의 精氣도 눈으로 올라오므로 五臟의 정기가 약해지면 눈은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흐릿하게 보거나 때로는 착시 현상이 생긴다. 반대로 오랜 시간 눈을 사용하면 눈이 五臟의 精氣를 많이 가져다 사용하게 되어 五臟의 精氣가 줄어들게 되고 이어서 五臟에 내재된 마음마저 미혹하게 되어 인식상의 착오가 생긴다. 또한 어떤 일을 오랫동안 골똘히 하거나 싫어하는

일을 한 사람은 神氣가 피로해져 五臟의 氣가 약해지며, 과로나 과음으로 五臟의 氣가 약해지면 신기도 약해져 집중력이 떨어진다.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 또한 눈으로 가는 정기와 눈으로 드러나는 神氣를 손상시킨다. 이와 같이 눈은 五行 配屬으로 보면 간에 속하지만 다른 감각기관과 달리 肝 뿐만 아니라 五臟의 모든 精氣가 모이는 곳이어서 정신적, 육체적 모든 활동에 의해 생긴 五臟의 變化를 담게 된다<sup>52)</sup>.

『靈樞 大惑論』에 따르면, 눈은 五臟六腑의 精氣가 모이는 곳이면서 몸을 운영하는 營氣, 衛氣와 정신적인 氣인 魂魄이 늘 머무는 곳이며 모든 氣의 정화인 神氣가 돌는 곳이다. 신기가 약해져 흩어지면 魂魄도 흩어지고 의지도 어지럽게 된다. “눈은 心에 의해서 보고 心에는 神이 살고” 있으며, “心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神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 좋아하는 心과 싫어하는 神이 서로 부딪치면 精氣가 어지러워져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게 되어 미혹하게 된다. 그렇기에 黃帝는 心은 좋아하고 神이 싫어하는 잘 꾸며진 정원을 볼 때마다 心과 神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정신이 혼란하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다<sup>53)</sup>.

동양에서는 옛 부터 色의 개념을 세속적, 현실적인 인간의 욕망에 비유되어 정신적인 세계의 저급한 개념에 색을 놓았다. 心은 耳目口鼻와 마찬가지로 좋아하고 욕망하는 본능을 갖는데, 神이 그 대상을 싫어할 경우 心과 神이 서로 부합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때 눈에 모인 오장의 정기는 어지러워지고 따라서 사물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지 못하게 된다. 사물은 눈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마음인 心과 心에 내재되어 있는 神이 사

50) 광노규. 감각과 신체-고대 중의학에서 신체 지각의 문제. 한국의철학회(3):77-95. 2007

51) 『靈樞 邪氣臟腑病形』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 其血氣皆上於面而走空竅, 其精陽氣上走於目而爲睛, 其別氣走於耳而爲聽, 其宗氣上出於鼻而爲臭, 其濁氣出於胃, 走唇舌而爲味.”

52) 광노규. 감각과 신체-고대 중의학에서 신체 지각의 문제. 한국의철학회(3):77-95. 2007.

53) 『靈樞 大惑論』 “目者, 五臟六腑之精也, 營衛魂魄之所常營也, 神氣之所生也. 故神勞則魂魄散, 志意亂. 是故瞳子黑眼法於陰, 白眼赤脈法於陽也, 故陰陽合傳而精明也. 目者, 心使也, 心者, 神之舍也, 故神精亂而不轉. 卒然見非常處, 精神魂魄, 散不相得, 故曰惑也. 黃帝曰余疑其然. 余每之東苑, 未曾不惑, 去之則復, 余唯獨爲東苑勞神乎 何其異也 歧伯曰 不然也. 心有所喜, 神有所惡, 卒然相惑, 則精氣亂, 視誤, 故惑, 神移乃復. 是故問者爲迷, 甚者爲惑.”



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韓醫學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며 心神을 바라보는 것으로 神은 心에 내재되어 있다. 즉 心은 마음 그 자체이며 神은 그 心이라는 바탕 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마음의 방향성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sup>54)</sup>.

이것은 고대 중국에서 본다는 것은 사물의 형태를 보는 것 뿐 만 아니라 사물을 인식한다는 통찰의 의미이다. 『黃帝內經』에서는 다른 어떤 감각보다 눈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눈 이외의 감각기관도 다루고 있지만 다른 감각기관은 눈에 비해 그 지위가 낮게 평가되어 있다<sup>55)</sup>. 특히, 눈만이 여러 편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黃帝內經』에서 ‘눈’은 외부 사물을 몸 안으로 들이는 감각기관이지만 또한 몸 속 상태를 겉으로 드러내는 곳이기도 하다. 사람의 감각기관은 몸 밖과 몸 안을 연결해 주는 통로이다. 이는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작용한다. 특히 보고 듣는 감각은 보고 듣는 단순한 감각작용을 벗어나 사물을 인식하는 토대가 된다<sup>56)</sup>.

현대 해부학이 말하는 ‘눈’이 하나의 구조물일 뿐이라면, 韓醫學에서 말하는 ‘눈’은 그 구조에 마음을 내포한 여러 氣가 채워지고 또한 거기에 내재된 心神이 대상과 접촉할 때 시각적 인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물론 이 때의 인식은 감응적 상대적 인식이다. 그러나 이 때 ‘感應의’, ‘相對的’이란 말이 비객관적이거나 그릇되고 제한적인 인식이라는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한의학에서 인식이란 내 몸을 떠나 있을 수 없고 사물과 나는 늘 다양한 조건에서 감응하기에 상대적이다<sup>57)</sup>.

### III. 考 察

54) 락노규. 감각과 신체-고대 중국의학에서 신체 지각의 문제. 한국의철학회(3):77-95. 2007.

55) 락노규. 감각과 신체-고대 중국의학에서 신체 지각의 문제. 한국의철학회(3):77-95. 2007.

56) 락노규. 감각과 신체-고대 중국의학에서 신체 지각의 문제. 한국의철학회(3):77-95. 2007.

57) 락노규. 감각과 신체-고대 중국의학에서 신체 지각의 문제. 한국의철학회(3):77-95. 2007.

색채가 주는 인상, 이미지, 감정적 효과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각적 효과이다. 따뜻함이나 부드러움과 같은 피부감각과 관련되어 느껴지는 색에서부터 여성스러움이나 고귀함을 느껴지는 색 또는 실제 크기보다 작거나 크게 지각되어지는 색에 이르기까지 색채 감정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색채감정은 색채가 갖는 어떠한 현상보다 개인적 문화적 요인과 관련이 깊다. 이것은 개인이 느끼는 정서적 감정 평가에 있어서 각 개인 또는 문화의 과거 경험(학습)과 관련하여 작용할 수가 있다<sup>58)</sup>. 이와 같이 색채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이나 느낌은 개인적인 경험, 기억, 사상, 의견, 개인이 소속된 사회의 문화적 배경, 또는 자연환경의 색채 등으로 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인류를 포함한 동물에게 있어서의 색각을 물체의 검증, 물체의 인식, 색의 신호적 특성의 3단계로 나누고 있으나, 이 시점으로 이해한다면 색채감정은 제 3단계의 색채 신호적 특성에서 이루어진다. 즉, 빨강에서 따뜻함이나 강함을 흰색에서 밝음이나 선경함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색채가 가지는 신호적 의미를 세분화하여 식별하고 있다.

색의 감정. 외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색채의 寒暖, 輕重, 強弱, 硬軟感 등은 색의 知覺感情으로 된다. 또는 喜怒哀樂의 생활감정과 연결되는 것. 신체의 움직임이나 표정 등을 동반하는 감정으로서의 색이나, 비교적 장시간에 걸치는 약한 기분과 향응하는 색 등은 색의 情動(emotion), 感情(feeling)으로 된다. 색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시각의 기본적인 특성중의 하나이며 육체적, 정신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 이유는 인간은 색을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눈을 뜨고 있을 때나 감고 있을 때에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색은 늘 우리생활 속에 존재하며 모든 사물을 느끼도록 해주는 중요한 도구이며 우리는

58) 차정민, 요코다마사오. 한·일 지역성과 미술의 전문적 학습이 색채감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색채학회 22(3):35-44, 2008.

그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색채는 인간의 비언어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예술의 목적이 생각의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색채 예술의 목적은 색채를 통한 생각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sup>59)</sup>. 비언어적소통을 가능케 하는 媒介物로 작용하는 것이 색채의 상징성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데 검은 하트를 그리는 사람은 없다. 붉은 색과 검은 색이 상징하는 바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상징성은 나라와 문화마다 차이를 지닌다. 그러나 적어도 동질 문화권 내에서는 색채가 언어로써 작용될 수 있다. 색채는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질 문화권 내에서 상호간의 交感으로써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각각의 색채는 각각 독특한 기분으로 사람의 마음에 전해지며 색을 즐기는 것, 즉 아름다움에 의하여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현대생활 속에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인간 특유의 뇌의 활동이며, 더불어 생명력을 촉진하고 건강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60)</sup>.

일반적으로 색채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강한 힘이 있다. 색채를 선택 시에 단지 색채 감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색채 감정에 대한 문제가 나타난다. 모든 물체는 특유의 색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색은 각기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미묘하게 변화하며 이러한 색의 감정효과는 의식되는 것에서 의식되기 어려운 것까지, 선명한 것에서 애매한 것까지 다양하다.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색채가 갖는 이러한 심리적인 연상에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연상과 상징하는 바가 있다. 이와 같은 色彩感情은 색채를 대상으로 하여 지각하는 사람의 감정적인 表象性으로 개개인의 주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표준화에 어려움이 많다. 색의 특정한 감정은 보는 사람의 心意狀態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素因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능적인 것과, 오랜 체험이나 경험에서 고유한 것도 있고, 또는 환경물과 연상 등으

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 溫冷感情은 暖寒感情이라고도 하며 빨간색이 따뜻하고 파란색이 차가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은 공통된 심리 작용이다. 이것은 색의 3속성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經時感情과 관련하여서는 冷色 계통의 색채를 칠한 방에 장시간 있어도 짧은 시간으로 느껴지고, 반대로 銀色은 잠시 있어도 오랜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쾌·불쾌 감정에 있어서는 호화찬란하고 쾌감을 주는 색이 있고, 수수하고 쓸쓸하며 불쾌하고 또는 구토증을 일으키는 색감정도 있다. 또 피로감과 관련하여 볼 때 색이 심리적 그리고 생리적으로 시각을 부드럽게하고 활동을 조장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色彩象徵法은 인간이 갖는 두려움이나 질투 등과 같은 감정적인 언어를 자극으로서 주고 이 말에 의해서 연상되는 색채를 선택시켜 이것에 의해서 性度 즉 남성적 성질이나 여성적 성질과 向性 즉 外向性과 內向性, 기타의 퍼서널리티(personality)를 판단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와 같은 빛은 시각을 통하여 인간이 가장 빨리 그리고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감각 중의 하나로서 인간의 사고와 감정 그리고 정신세계에 이르기 까지 막대한 영향을 이룬다. 특히 색은 물리학자 뉴턴이 말했듯이 '빛은 인간이 눈과 마음으로 색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며 색은 빛 그 자체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색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풍부하게 존재하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눈에 들어와 느끼고 있는 것이다.

괴테는 41살이 되던 해, 프리즘을 통해 바라본 흰 벽은 여전히 흰 벽이었고, 반면 검은색 그림이 그려진 흰 벽을 바라봤을 때는 흰색과 검은색의 경계에서 노랑 파랑 빨강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모든 색깔이 만들어진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창했다. 『색채론(色彩論) Zur Farbenlehre』은 괴테(J.W. von Goethe : 1749~1832)의 자연과학 영역에 있어서의 최대의 고심작으로 1810년에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는 뉴턴(S.I. Newton)의 학설을 반대하였다. 그의 색채에 대한 연구는 이론과 관념에

59) 데이비드 라우어. 조형의 원리. 서울, 미진사, p238, 1985.

60) 류수정. 오방색의 색면 구성을 통해 전체론적 기능을 시도한 다과기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8, 2007.

서 조화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피테는 자신의 색채론을 통해 뉴턴의 광학을 비판한 커다란 이유는 바로 빛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인간을 통해서 이해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피테는 각각의 색은 특별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 한다<sup>61)</sup>. 피테는 개별적인 색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온전히 하나의 색으로만 둘러싸이게 하면 사람과 색은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색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예로 날씨가 흐린 날, 갑자기 햇빛이 다시 구름을 뚫고 나와서 밝은 빛을 비추었을 때 사람의 감정도 이에 맞추어 밝아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피테는 “자연은 총체성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로 나아가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색채를 다루고 느끼는 일은 “전체 자연이 색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시각에 드러내”는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은 색을 통해 인간은 육체 뿐 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진화하여 자유 즉 깨달음을 이루게 한다고 주장 한다<sup>62)</sup>.

피테는 색채 현상을 밝음과 어둠의 양극적 대립 현상으로 보면서, 인간의 감각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색채 자체의 실체를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이 이후 그의 색채 이론의 토대가 된다. 그의 색채 이론은 색채의 심미적인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병리 색에 대한 독창적인 설명에 의하여 일부 화가와 생리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을 뿐, 물리학의 주류로부터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피테는 『색채론』의 머리말에서 색채 연구에 임하는 기본적 태도를 우선 밝히고 있다. 즉, 사물의 본질을 곧바로 표현하려는 시도는 헛된 일이다. 인간은 사물의 작용을 인식하며, 이러한 작용들의 전체 역사가 사물의 본질을 포괄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세계를 주의 깊게 응시하면서 이론화 한다”는 식이다. 이러

한 태도는 관찰의 주체와 그 대상의 유기적 연관성을 놓치지 않고, 이론과 경험의 간격을 가능한 좁히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의 자연과학 연구 방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는 태도이다<sup>63)</sup>.

직접적인 관찰과 경험에 바탕을 두므로 피테가 색채 현상의 연구에 있어서 빛과 눈 사이의 연관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눈의 존재는 빛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다. 눈은 빛과 만나면서 빛을 위한 기관으로 형성되며, 이로써 내부의 빛과 외부의 빛은 서로 감응하게 된다.” 물론 빛과 눈 사이에 친근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둘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눈 속에 일종의 빛이 들어 있어서,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미세한 자극이 주어지면 색채가 촉발된다는 것이다<sup>64)</sup>. 그에 따라 색채 현상들을 지배하는 원리는 피테에 의하면 양극성의 원리, 상승의 원리, 총체성의 원리이다. 양극성과 상승의 모든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에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양극성은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자연의 원리이다<sup>65)</sup>.

모든 색채는 그 대상에 본질적인 변화를 보여 주게 된다. 피테는 자신의 색채론을 통하여 색채가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시각적인 현상 외에도 인간의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색채심리학으로 색채의 심리 변화를 '색채의 감각적 윤리적 효과'라는 단어로 설명하였다. 즉 색채는 단순히 시각적인 것이 아닌 인간의 시각 감각에 영향을 주어 인간의 심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으로 모든 색채는 감각적 반향을 일으킨다는 것이다<sup>66)</sup>. 색채 현상에 있어서의 단순한 견해 차이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파악하는 사유 방식에 있어서의 근원적인 차이였던 것이다. 피테의 『색

61) 장희창. 피테 『색채론』의 구조와 그 현대적 의미. 피테연구, 11(1):173-189, 1999.

62) 피테, 장희창 옮김. 색채론. 서울, 민음사, p260, 2005.

63) 장희창. 피테 『색채론』의 구조와 그 현대적 의미. 피테연구, 11(1):173-189, 1999.

64) 장희창. 피테 『색채론』의 구조와 그 현대적 의미. 피테연구, 11(1):173-189, 1999.

65) 장희창. 피테 『색채론』의 구조와 그 현대적 의미. 피테연구, 11(1):173-189, 1999.

66) 서혜옥. 칸딘스키의 색채론 내적 필연성의 심리학적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23(1):69-80, 2009.

채론』은 엄밀한 실험과 수학을 토대로 하는 근대 자연과학의 연구 방식과는 그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달랐다. 괴테에게 있어서 자연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감각 인상과 더불어 시작되며, 원현상에 대한 발견을 그 목표로 한다<sup>67)</sup>.

괴테는 “눈이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음과 어둠, 색채 모두가 눈으로 하여금 한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부터, 그리고 대상의 부분들을 서로 간에 구분케 하는 그 무엇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세계를 구성하며 또한 판지 위에 실제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완벽한 가시의 세계를 만들어 내는 회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동양철학의 陰陽 이론과도 상통하는 원리로서 빛과 어둠 그리고 경계면의 모든 색은 동양철학의 陰陽理論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빛이 변화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체계로 빛의 변화를 太極<sup>68)</sup>으로 그리고 밝음(흰색) 자연(유채색) 어둠(검은색)의 빛과 색의 현상을 五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빛의 음양(흑백)과 색(물질)의 음양(빨강 파랑) 그리고 삼태극의 회전 원리로 五色의 체계를 생각할 수 있으며, 靑赤黃白黑의 五色이 되며 木火土金水 五行에 해당 한다<sup>69)</sup>. 이러한 괴테의 색채에 대한 양극성의 원리, 상승의 원리는 동양에서의 陰陽과 五行 원리와 相通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괴테의 이론은 관찰자의 색에 대한 심리적 태도와 색의 심리적 반향을 제시함으로써 자연의 색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고 그 성질과 교류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일통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 IV. 結 論

동양철학의 음양과 오행이론은 우주와 자연

67) 장희창. 괴테 『색채론』의 구조와 그 현대적 의미. 괴테연구, 11(1):173-189, 1999.

68) 박광수. 아유르베다의 차크라 이론과 음양오행사상에 따른 색채치유 원리와 방법에 비추어본 괴테의 색채론. 괴테연구 19:21-45 2006.

69) 박광수. 아유르베다의 차크라 이론과 음양오행사상에 따른 색채치유 원리와 방법에 비추어본 괴테의 색채론. 괴테연구 19:21-45 2006.

을 관찰한 결과로서 얻어진 이론이기에 소우주인 인체에 적용하여 의학으로 발전되었다. 즉 동양에서 음양의 원리로 보면 빛과 그림자라는 상대적 개념은 빛을 모든 색을 포함한다. 그에 따라 검은색 또한 빛의 한 자취로서 이해함을 알 수 있다. 즉 빛은 양의 개념 속에 어둠은 음의 개념 속에 존재되며 괴테의 주장대로 빛과 어둠 그리고 색은 인체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양의학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韓醫學 중에서 望診은 그 효용성과 적용은 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望診에 있어서 色은 단지 ‘色’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心’을 통한 心에 내재되어 있는 神을 인식한다는 것으로 기색을 살피는 것이며 인간의 심리적 감성적 표현을 잘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색을 인식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보는 감각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만 인식되는 것 뿐 만 아니라 색을 통해 생명의 에너지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인간이 빛(생명)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빛은 단순히 빛의 파장이 아닌 색을 통해 마음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인간의 눈은 색채를 통해 끊임없이 아름다움과 조화를 느끼는 색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배하나. 선호색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색채 감성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2004.
2. 류수정. 오방색의 색면 구성을 통해 전체론적 기능을 시도한 다과기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2007.
3. 洪元植 校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4. 洪元植 校注.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5. 許慎.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6. 공희일. 색채의 한의학 적용 방법론 연구. 제6회 현곡상 응모 논문집, 1996.

7. 신승우 외. 색채요법에 관한 고찰. 한방재활 의과학회지 10(2):139-156, 2000.
8. 片秀範, 尹暢烈. 『內經』中 五色에 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2(2):105-119. 2004.
9.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0. 김광호, 時·空 合一의 觀點으로 살펴본 顔面望診에 대한 研究,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11. 汪認庵 著, 汪昂 編著, 本草備要, 中國,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12. 唐宗海. 血證論. 대만, 力行書局有限公司, 1984.
13. 唐宗海, 金俊錡 國譯, 本草問答, 서울, 대성문화사, 1996.
14. 박승림. 色彩 心理.治療와 韓醫學에서의 色の 適用. 大田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2004.
15. 광노규. 감각과 신체-고대 중국의학에서 신체 지각의 문제. 한국의철학회 (3):77-95. 2007
16. 이천. 편주의학입문(영인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17. 허준. 대역동의보감. 서울, 범인문화사, 1999.
18. 차정민, 요코다마사오. 한·일 지역성과 미술의 전문적 학습이 색채감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색채학회 22(3):35-44, 2008.
19. 데이비드 라우어. 조형의 원리. 서울, 미진사, 1985.
20. 장희창. 괴테 『색채론』의 구조와 그 현대적 의미. 괴테연구, 11(1):173-189, 1999.
21. 괴테, 장희창 옮김. 색채론. 서울, 민음사, 2005.
22. 서혜옥. 칸딘스키의 색채론 내적 필연성의 심리학적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23(1):69-80, 2009.
23. 박광수. 아우르베다의 차크라 이론과 음양

오행사상에 따른 색채치유 원리와 방법에 비추어본 괴테의 색채론. 괴테연구 19:21-45 2006.